

전상현·최원준 역대 연봉... 정해영 159% '최고 인상'



정해영

KIA타이거즈가 2021시즌 연봉협상을 마무리했다.

마무리 전상현이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역대 연봉자가 됐고, 마운드의 '셋별' 정해영이 이번 연봉 협상자 가운데 최고 인상률(159.3%)을 기록했다.

KIA는 27일 2021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53명과 계약을 마무리했다. 재계약한 선수 가운데 인상자는 27명, 동결 7명, 삭감 19명이다.

투수 전상현이 76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84.2% 인상되면서 역대 연봉자 대열에 합류했다. 6400만원이 인상되면서 이번 재계약 선수 중 최다 인상액을 기록했다.

박준표도 1억1000만원에서 5000만원(인상률 45.5%) 오른 1억6000만원에 연봉 계약을 끝냈다.

정해영은 27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연봉이 상승하면서 159.3%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홍상삼도 4000만원에서

KIA 연봉 계약 완료

전상현 84.2% 인상 1억4천만원
최원준 2년만에 역대 연봉 복귀
루키 정해영 2700→7000만원
총액 31억원...평균 5960만원
인상 27명·동결 7명·삭감 19명

125% 오른 9000만원에 연봉협상을 끝냈다.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심동섭(8000만원), 김유신(3000만원)은 지난해와 같은 금액에 재계약했다.

'이적생' 장현식은 1억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되면서 1억 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최원준은 7000만원에서 85.7% 오른 1억3000만원에 재계약을 하면서 2년 만에 역대 연봉에 복귀했다.

유민상은 6000만원에서 4500만원(75%) 오른 1억5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외야수 오선우는 400만원 오른 3400만원, 이

우성은 100만원 오른 4100만원에 계약을 마쳤다.

이창진과 김호령은 각각 1500만원(7000만원)과 1200만원(7300만원) 삭감됐다.

FA계약기간 만료로 연봉 계약을 새로 한 나지완은 지난해 6억원에서 2억원 삭감된 4억원을 받는다.

'예비 FA' 나지완을 제외한 52명의 연봉 총액은 30억9900만원, 평균 5960만원이다.

역대 연봉자는 박준표(1억6000만원), 전상현(1억4000만원), 최원준(1억3000만원), 유민상·장현식(이상 1억5000만원), 임기영·김운동·박찬호·류지혁·나주환(이상 1억) 등 10명이다.

한편 KIA의 역대 최고 인상률은 2010년 김상현이 기록한 361.5%다.

당시 김상현은 우승 주역으로 활약하면서 52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연봉이 수직 상승했다.

최고인상액 기록은 양현종이 가지고 있으며, 2015년 1억2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이 인상되면서 4억원에 재계약을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원준

KIA, 새 유니폼 입고 새출발

KIA타이거즈가 새로운 CI와 유니폼을 공개했다.

KIA타이거즈가 모기업의 로고변화에 맞춰 구단CI(Corporate Identity)와 유니폼에 새로운 'KIA' 로고를 적용하고, 색상에 감정을 가미했다.

우선 엠블럼에 균형과 리듬, 상승의 의미를 담은 새로운 'KIA' 로고가 적용됐다.

홈 베이스와 승리(Victory)를 상징하는 'V' 모양으로 조합된 엠블럼의 바탕 색상은 기존 빨간색에서 검은색(타이거즈 미드나잇 블랙·Tigers midnight black)으로 변경했다.

엠블럼의 위드마크는 종전보다 채도가 향상된 빨간색(타이거즈 라이브 레드·Tigers live red)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구단의 진취성을 표현했다. 특히 빨강과 검정

올 시즌 바뀐 CI 공개



이 어는 강렬한 대비는 선수단과 팬의 뜨거운 열정을 상징하며, 동시에 KBO리그 최고 명문 구단의 정통성을 표현했다.

유니폼과 모자도 새 CI색상을 적용해 변화를 줬다.

홈 유니폼의 위드마크는 새 KIA 로고와 함께 검은색으로 바꿨다. 배번과 유니폼 뒷면에 승리

를 상징하는 'V' 라인도 '타이거즈미드나잇 블랙' 색상을 적용해 강렬함을 표현했다.

과감하게 면 분할을 한 원정유니폼은 주 색상을 검정과 빨강으로 변경했다. 빨강과 검정 사이를 채우는 'V' 라인은 흰색으로 돋보이게 했고, '열정'과 '승리'의 메시지를 담았다.

또 일체감을 주기 위해 모자와 언더티셔츠, 벨트의 색상은 홈과 원정 유니폼 모두 '타이거즈 라이브 레드'로 통일했다.

KIA타이거즈 관계자는 "올 시즌부터 사용할 CI와 유니폼은 모기업의 신규 로고 적용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구단의 진취적 의지를 표현했다"며 "팬과 함께 최고의 열정으로 최선의 경기를 펼치는 KIA타이거즈의 모습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KIA는 새로운 CI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MLB 전설들 '명예의 전당' 입성 무산

실링·본즈·클레멘스, 미국야구기자협회 투표 75% 지지 못얻어

미국프로야구 월드 시리즈 '핏빛 투혼'의 주인공인 커트 실링과 메이저리그(MLB) 홈런 기록을 보유한 배리 본즈, '로켓맨' 로저 클레멘스 모두 MLB 명예의 전당 투표에서 75%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MLB닷컴과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는 27일(한국시간) 2021 MLB 명예의 전당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투표 대상이 된 후보 25명(기존 14명, 신규 후보 11명)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건 실링이었다.

하지만 실링도 71.1%(285표) 득표에 그쳐, 명예의 전당 헌액 기준 75%를 밑돌았다.

본즈는 61.8%(248표), 클레멘스는 61.6%(247표)의 지지를 얻었다.

MLB 명예의 전당 투표에서 단 한 명도 헌액 기준을 넘지 못한 건,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MLB닷컴은 "1960년 이후 51년 만에 'MLB 명예의 전당 멤버가 추가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보냈다.



실링



본즈



클레멘스

BBWAA 투표에서 명예의 전당 헌액 기준 75%를 넘는 후보가 없었던 2013년에도 '심판' 행크 오데이 등이 베테랑 위원회 심사를 통해 명예의 전당에 입회했다.

아직은 2021년 명예의 전당 베테랑 위원회 심사가 예정돼 있지 않다.

명예의 전당 후보는 최대 10차례 투표 대상자가 된다.

실링과 본즈, 클레멘스는 9번째 투표에서도 75%를 넘지 못했다. 남은 기회는 2022년 단 한 차례뿐이다. /연합뉴스

'시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축구'

광주 FC, 11주년 캐치프레이즈 발표...선수들 건승 기원

광주FC가 창단 11주년을 강조하는 2021시즌 캐치프레이즈를 발표했다.

광주는 27일 "2021시즌을 앞두고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구단의 정체성을 담은 캐치프레이즈 'It's yellow'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구단의 팀컬러이자 상징이기도 한 노란색을 뜻하는 'It's yellow'는 새로운 시작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축구'라는 창단 모토를 살리기 위해 반영했다.

yellow의 영문 L을 숫자 '1'로 변형해 구단의 창

단 11주년을 강조했다.

또 강인하고 역동적인 공격축구로 광주만의 색깔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와 함께 그라운드에서 맹활약을 펼칠 11명의 선수들의 건승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았다.

이번 캐치프레이즈는 가로형 디자인과 함께 메인(숫자 '11' 노란색)과 서브(숫자 '11' 빨간색)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각종 구단 제작물과 MD상품, SNS 이미지 등 주요 항목에 활용될 예정이다.

광주 관계자는 "2010년 창단부터 지난해 역대 최고 성적까지 모든 영광은 팬들이 있기에 가능했



2021 GWANGJU FC CATCHPHRASE

다"며 "이번 캐치프레이즈의 의미를 담아 광주만의 축구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더 세련된 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레지던트컵 골프 美 대표팀 단장에 러브 3세

PGA 통산 21승 베테랑...코로나 여파 내년 9월로 연기

데이비스 러브 3세(57)가 2022년에 열리는 프레지던트컵 골프 대회 미국 대표팀 단장에 선임됐다.

미국과 인터내셔널 팀의 남자 골프 대항전인 프레지던트컵은 격년제로 열리며 이번 대회는 2022년 9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웨일 할로 클럽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원래 올해 열리게 되어 있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2022

년으로 미뤄졌다.

미국과 유럽의 남자 골프 대항전은 라이더컵으로 따로 열리기 때문에 프레지던트컵의 인터내셔널 팀에는 유럽 국가 출신 선수들이 제외된다.

1997년 PGA 챔피언십 우승자인 러브 3세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통산 21승을 거둔 베테랑이다.

2012년과 2016년 라이더컵에서 미국 대표팀 단

장을 맡았으며 프레지던트컵 단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레지던트컵에서 러브는 2013년, 2015년, 2017년 부단장을 역임했고 대회에는 6차례 출전한 경력이 있다.

2022년 프레지던트컵의 인터내셔널 단장에는 트레버 이멀먼(42·남아공)이 이미 선임된 바 있다. 직전 대회인 2019년 프레지던트컵에서는 미국 대표팀에 타이거 우즈, 인터내셔널 팀에 어니 엘스(남아공)가 각각 단장을 맡았다.

1994년 창설된 프레지던트컵 역대 전적은 미국이 11승 1무 1패로 압도하고 있다. 2003년 대회 무승부 이후 최고 8연승 중이다. /연합뉴스